

엔도 슈사쿠 작품에서의 배교와 순교의 양상고찰*

육근화**

(e-mail : yookgh@dju.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
| 2. 엔도 작품에서의 배교와 순교의 양상 | 24. 『무사(侍)』 |
| 2.1. 『침묵(沈黙)』 | — 기독교의 일본토착화로서의 순교 |
| — 배교를 통한 역설적인 순교 | 25. 『깊은 강(深い河)』 |
| 2.2. 『철의 항왜-고니시유키나가전
(鉄の首枷 - 小西行長伝)』 | — 종교다원주의 속의 순교 |
| — 면중복배 속의 배교와 순교자적 행동 | 3. 작품 속의 배교와 순교 양상에 대한 특징비교 |
| 2.3 『총과 십자가(銃と十字架)』 | 4. 나가기 |
| — 순교 속의 배교의 심리 | |

키워드 : 背教(apostasy), 殉教(martyrdom), 神(God), 信仰(faith), 宗教多元主義(religious pluralism)

1. 들어가기

문학과 종교를 관련지어 생각할 때, 거기에는 체험에 근거한 표현과 새로운 창작으로서의 표현이 있으며, 양자 간의 끊임없는 융합과 변용의 과정 속에는 작가 자신의 정신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일생을 서양기독교에 대한 거리감에서 벗어나 ‘나의 예수’를 추구한 가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이후 엔도로 칭함. 1923.3~1996.9)는 인간 내면의 가장 심오한 부분에서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신에 대하여 어떻게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대전대학교, 정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이는 본 논문에서 고찰할 각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배교와 순교에 대한 기준으로서 엔도의 작품세계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엔도는 서양 기독교¹⁾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 프랑수유학을 통하여 동양 범신론 세계 속의 가톨릭 신자로서 고착화된 부정적인 엄부의 예수상에 대한 거리감을 토로하였으며, 이후 엔도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소설들에서 기존의 배교와 순교의 정의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고뇌에 찬 다양한 양상들을 부각시켜 일본인에 맞는, 더 나아가 모든 종파와 인종을 초월한 ‘사랑의 신 나의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엔도의 『침묵』과 함께 이후의 대표적인 네 작품—『철의 항쇄』 『총과 십자가』 『무사』 『깊은 강』—의 배교와 순교 양상에 대한 특징을 중심으로 각 작품에 대한 비교·고찰을 해보려한다²⁾. 지금까지 엔도작품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한 작품에 대한 구성과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본 논문의 주제와 같은 선행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배교와 순교 양상을 주제로 한 비교·고찰은 엔도의 총체적 문학사상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 생각된다³⁾.

2. 엔도 작품에서의 배교와 순교의 양상

2.1. 『침묵(沈黙)』 - 배교를 통한 역설적인 순교

작품 『침묵』⁴⁾은, 2000여년에 걸친 기독교 신학에서의 난제인 ‘인간이 절제 절명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

- 1) 본 논문에서 작가 엔도의 ‘서양기독교’라는 이미지는 ① 가톨릭의 본질인 ‘인간의 보편적 진리로서의 종교’가 아닌 ‘백인이 모든 선(善)의 기준으로서 백인만을 위한 종교’ ② 신과 인간의 융합이 아닌 대립구조의 양상. - 순종과 반항, 선과 악, 죄와 벌, 천국과 지옥 등, 엄부로서 인간을 심판하는 신의 모습이다.
- 2) 본 논문의 고찰 대상으로 다섯 작품을 선정할 이유는, 범신론 풍토 속의 가톨릭 작가로서의 고뇌와 동서양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기존의 ‘서양기독교’와의 차별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 3) 단일 작품의 배교와 순교와 관련된 논문은 육근화(2001) 「엔도슈사쿠의 『총과 십자가』론」 『일본학보』 제49집, 한국일본학회가 있다. 혹시 다른 논문이 있다면 필자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 4) 작품 『침묵』의 텍스트로는, 遠藤周作(1978) 『沈黙』 新潮社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침묵』과 관련된 인용문 페이지는 본 텍스트에 기인한다.

다. 주인공 로드리고는 이러한 신의 침묵 속에 만난 ‘나의 예수’, 즉 인간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고뇌하는 사랑의 신과의 연대감을 통하여 세속적인 배교와 순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다⁵⁾.

본 절에서는 주인공인 로드리고의 배교 속의 순교자적 심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작품 『침묵』의 로드리고는 엔도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모성적인 사랑의 신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인물이라 하겠다. 본 작품은 로드리고의 배교행위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로마교황청으로부터 금서로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로드리가 금교령과 함께 모든 성직자의 추방령이 내린 박해의 땅 일본에 잠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제로서의 롤모델이었던 스승 페레이라가 이교도들 앞에서 짐승처럼 배교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다. 자신뿐만이 아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스승 페레이라가 설혹 어떤 고문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버리고 이교도에게 굴복했다는 사실은 로드리고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⁶⁾. 처음에는 일본으로의 파견을 반대하던 로마교황청도 교회의 불명예를 설욕하기 위해, 또한 목자를 잃은 일본신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로드리고를 포함한 3명의 사제 파견에 합의하게 된다⁷⁾.

천신만고 끝에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고는, 사제도 없이 신앙생활을 이끌어오던 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제로서의 사명감과 기쁨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가에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감옥 안에서 그는 밖으로부터 태평스럽게 들리는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의 고통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던 예수 곁에서 무심히 잠들었던 제자들과 같다고, 아직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긍지를 지닌 로드리고 자신만이 고뇌하

5) 新教出版社(1996) 「座談会 ‘神の沈黙と人間の証言’」 『福音と世界』, 新教出版社, p.5.
 “침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신의 침묵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약자라고나 할까 강자가 되지 못한 인간에 대하여 역사나 사회에서 그것을 오점으로써 침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 片岡弥吉(1991) 『日本キリシタン殉教史』, 時事通信社, p.440.

7) 유럽 교회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 일본에서 서양의 대 성직자가 배교를 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좌절이 아닌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의 굴욕적인 패배로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던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오만함 속에 순교자적인 사제로서의 희열마저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신앙을 고수하던 그가 결국 배교에 이르게 된 것은, 짜증나고 한심스럽게 들리던 코고는 소리가 다른 아닌 자신으로 인해 오물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린 신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였음을 알고 나서이다. 로드리고는 신자들을 위하여 배교의 상징적인 행위인 ‘후미에(踏繪)’에 새겨진 동판의 예수의 얼굴에 발을 올려놓는다.

그 때, 밟는 것이 좋다라고. 동판의 그 사람은 사제를 향하여 말했다. 밟는 것이 좋다. 네 발의 아픔은 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밟는 것이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p.134)

로드리고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던 존재, 가장 성스럽다고 믿은 존재, 인간의 이상과 꿈에 가장 충족된 믿음의 존재를 밟는 고통 속에 ‘밟아도 좋다’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

신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코고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한없는 자책과 함께 이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데 ‘신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절규 속에서, ‘배교행위의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너희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며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사랑의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성직자들은 이 모독의 행위를 격렬히 비난하겠지만, 자신은 그들을 배반해도 그 사람을 결코 배반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p.147)

위 문장은 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의 배교 행위를 한 로드리고가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고 심판하는 엄부로서의 서양 신에 대한 거리감을 떠나 일 본인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와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신, 나의 예수’와의 만남을 상징하고 있다.

‘사제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라고 자문할 때, 사제란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랑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외형적인 배교행위를 한 로드리고를 ‘신앙을 버린 배교한 사제’로서 단죄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싶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작가 엔도도 『침묵』에서 로드리고의 배교를 통한 역설적인 순교자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세속의 흑백논리 속의 심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2.2 『철의 항쇄 -고니시 유키나가전(鉄の首枷-小西行長伝)』

— 면중복배 속의 배교와 순교자적 행동

작품 『철의 항쇄』⁸⁾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고니시 유키나가(1558?~1600.11.6.)의 삶을 그린 평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게 패한 무장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하여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가 엔도가 그려낸 픽션 장편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기독교 무장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휘하에서 면중복배의 삶 속에 배교를 반복했던 등장인물 유키나가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유키나가는 일본 전국시대 말기부터 아즈치 모모야마시대에 걸친 무장으로서 히고노구니 우토(肥後の国, 宇土)의 성주였으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함께 임진왜란의 선봉에 섰던 무장이다⁹⁾.

본 작품 『철의 항쇄』에는 기독교의 영주로서 주군 히데요시의 기독교 박해정치에, 기요마사처럼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주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처럼 현실세계에 대한 미련이나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수할 수도 없는 유키나가의 일생을 통한 처절한 몸부림인 면중복배의 삶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8) 작품 『철의 항쇄』의 텍스트로는, 遠藤周作(1977) 『鉄の首枷』, 中央公論社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철의 항쇄』와 관련된 인용문 페이지는 본 텍스트에 기인한다.

9) <http://search.yahoo.co.jp/search>; 小西行長

고니시 유키나가의 출생년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료는 현재 일본에 없다. 처음에는 우키타 가문을 섬기다가 히데요시의 가신이 되었으며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규슈의 우토 지방을 통치하는 영주가 되었다.

우콘이 영원한 신 이외에는 섬길 수 없다고 무로즈에서 말했다 때, 유키나가는 친구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려고 결심했다. 그것은 사카이 상인이 그때까지 권력자에게 취해왔던 면중복배의 삶의 방식이다. (pp.94-95)

유키나가의 면중복배의 삶은, 히데요시가 취한 외국신부들과 기독교 무사들에 대한 일본추방령과 함께 기독교 무장들에게는 배교를 강요하는 데서 시작되었다¹⁰⁾. 그러나 세속에 대한 영달도 신앙도 버릴 수 없었던 유키나가는 오르칸티노 신부와 우콘을 고토지마에 숨겨주면서도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신자로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임진왜란에 선봉장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는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의 제1군단 총 지휘관으로서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 귀족의 딸인 기독교 신자 오다 유리아를 자신의 부인의 시종으로 데려갔으며 쓰시마 영주의 부인이 된 딸에게도 귀족의 자제 2명을 보냈다. 이외에도 농민들을 포함하여 5만여 명의 조선인 포로를 잡아 자신의 영지인 우토의 노비로 활용했다. 그러나 그는 신자로서도 상인으로서도 무익하기 짝이 없는 이 전쟁을 끝내려 화평책을 펴려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하수인인 무장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길을 택하였다¹¹⁾.

히데요시 사후 권력을 잡은 이에야스와의 최후의 결전인 세키가하라전투에서 반대편에 섰던 유키나가는 패배하여 도주 4일 만에 잡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카이에서 굴욕적인 조리돌림을 당한 후, 교토의 로쿠조가하라에서 참수되었다.

이제야말로 철의 항쇄를 벗을 때가 왔다. 그는 이제 오직 한 가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의 철의 항쇄이었던 현세에서의 야망도 야심도 사라졌다. 지금까지 늘 소중하게 몸에 지니고 다니던 그리스도와 성모의 그림(이것은 카롤5세 왕의 여동생인 포르투갈 왕비로부터의 선물)을 유키나가는 양손으로 받들어, 세 번,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 「해맑은 얼굴로 잠시 천상을 양 눈으로 응시하고 나서 성화를 바라보고」 참수하는 사람에게 목을 내밀었다. 참수하는 사람은 칼로 그 목을 앞으로 떨어뜨렸다. (p.262)

10) 遠藤周作·三浦朱門(1967) 『キリタン時代の知識人』 日経新書59, 日本經濟新聞社, p.65.

11) 유키나가는 조선군에게 일본군의 동태와 가토의 조선 입국 날짜, 심유경에게도 진주성의 공격날짜와 일본군의 방어태세까지도 알려준다. (p.227)

일본에서 패장이 도망가거나 할복자살하지 않고 조리돌림 당할 때까지 굴욕을 참아내며 연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유키나가는 세키가하라 전투의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할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자살을 금하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굴욕을 참아가며 참수를 택했다고 생각된다. 그는 죽기 전 신부에게 고백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해진다.

기독교 박해의 전란의 시대에 기독교 무장으로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유키나가는 속세의 권력에 대한 야망이 신앙 안에서는 철의 항쇄로, 속세에서는 만인에 대한 사랑을 설파하는 신앙이 오히려 철의 항쇄가 되어 그의 목을 죄어왔다고 생각된다. 평생을 면중복배의 삶 속에 신앙의 배교자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유키나가는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에 귀의하는 순교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작품 『철의 항쇄』에서는 면중복배의 삶 속에 내재한 약한 인간적인 심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순교자적 행동을 부각시켜 시대적 상황 속의 어쩔 수 없는 당위성¹²⁾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배교자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2.3 『총과 십자가(銃と十字架)』 — 순교 속의 배교 심리

『총과 십자가』¹³⁾는, 배교자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엔도 작품세계에서는 매우 드물게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순교한 신앙의 강자 베드로 기베(ペドロ岐部, 1587~1639.7.4)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작품 또한 『철의 항쇄』처럼 역사적 사료로서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베에 대한 행적을 쫓았다는 점에서 작가 엔도의 픽션장편소설로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기베는 1600년 13세의 나이로 아리마(有馬) 신학교에 입학하여 1606년도에 졸업한 후, 8년간 교회나 신부들의 일을 도와주는 하급 전도사로서 활동하였으며, 1614년 이에야스의 기독교 금교령과 함께 내려진 해외추방령에 의해서 마

12)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란의 시대에 가문의 안위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키나가의 표면적인 면중복배의 삶 속에 감추어져있는 신자로서의 갈등과 행적에 대한 부각이야말로 독자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당위성을 제공한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13) 작품 『총과 십자가』의 텍스트로는, 遠藤周作(1979) 『銃と十字架』, 中央公論社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총과 십자가』와 관련된 인용문 페이지는 본 텍스트에 기인한다.

카오로 가게 된다. 기베는 자신이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우월감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사제가 되기 위한 일념으로 로마의 예수회 본부를 향해 탈출을 강행하여 온갖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마카오에서 출발한 지 3년째인 1620년 로마에 도착한다.

로마 예수회는 그의 사제로서의 학식과 신부로서의 열성에 감동받아 1620년 11월 15일 그의 나이 32세에 사제서품을 주게 된다¹⁴⁾.

기베는 순교할 각오로 바로 귀국하려하나 일본이 금교령과 함께 완전 쇄국 정책으로 들어간 탓에 동남아를 배회한 끝에 1630년 마닐라로부터 일본 사츠마(薩摩) 지방에 가까스로 도착하게 된다.

기베는 잠복생활을 하며 나카사키(長崎)에서 센다이(仙台)까지 일본인 사제로서 동포인 신도들에게 세례와 성사를 주며 1639년까지 활동하다 체포되어 에도로 압송된다. 그는 이곳에서 이미 배교한 신부 페레이라를 만나 열성적으로 신앙심의 회복을 성과했으며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그의 나이 52세인 1639년 7월 4일 화형에 처해지며 순교에 이른다.

이와 같은 기베의 여정은 역사적 사료에 기인한 궤적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엔도는 작품 『총과 십자가』에서 그의 순교자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역사적 사료의 행간과 행간 사이를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순교자 속에 숨겨져 있는 세속적인 야망과 배교의 심리’를 부각시켜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기베가 마카오로 피해간 시점부터 시작된다.

세속을 버리고 신앙의 세계에 살려고 한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세속적인 야심은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들과 같이 예수회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고 싶다는 야심이다. 확실히 성직자로서 일생을 신에게 바침과 동시에, 사람들의 존경 까지도 얻고 싶다는 속된 바람도, 이들 신학교 졸업생의 종교심에 섞여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시기의 베드로 기베도 또한 그 중 한 사람이었다. (p.85)

역사적 사료 어디에도 기베에 대한 세속적인 야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엔도는 의도적으로 신부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얻고자하는 현실적인 속

14) 베드로 기베 : ‘베드로 카스이 기베’라고도 불리움.

<http://search.yahoo.co.jp/search;?e=トモ岐部>

된 측면을 처음부터 내세워 기베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일본 신도들을 버리고 마카오로 향했음을 암시하고 있다¹⁵⁾.

그러나 하급전도사로서의 지위는 순교에 참여하더라도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구원의 사업에 동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더라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엔도는 기베가 속된 야망으로 신부가 되려고 로마행을 선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또다시 귀국하여, 죽음의 위협에 몸을 던질 것을 회피했다. 순교를 멀리 했던 것이다. 고국에서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있는 동포에게 일시적으로 눈을 감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p.113)

작가 엔도는 기베의 이러한 회피와 관련하여 로마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그의 일본잡입 시기가 늦어진 사실을 들어 이는 순교에 대한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기인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인 신부이면서 박해와 탄압에 신음하는 동포신도를 버리고 이 아유타야에 와버린 사실. 서구제국의 침략이나 식민지주의와는 전혀 다른 예수의 복음을 일본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할 사명을 지금 태만히 하고 있다는 의식은, 아유타야에 온 베드로 기베를 역시 괴롭혔다. (p.170)

작가 엔도는 신앙심과 사명감이 아무리 강한 기베라 하더라도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배교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기술한다¹⁶⁾. 기베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한 예수를 떠올리며 순교자로서의 길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묘사에서도 오히려 신앙의 강건함보다는 약한 심성에 대한 자책으로 해석하여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배교의 심리는 늘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작품 『총과 십자가』에서 ‘신앙의 강자로서 순교 속

15) 전개서, 遠藤周作(1979) 『총과 십자가』 p.90.
기베와 함께 마카오로 향한 일행은 신부 23명, 수도사 29명, 하급전도사 53명이었으나, 남은 사람들은 예수회 27명, 프란치스코회 6명, 도미니코회 7명, 아우구스티누스회 1명의 자료를 들어 기베의 속된 야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16) 육근화(2001) 「엔도슈사쿠의 『총과 십자가』론」 『일본학보』 제49집, 한국일본학회, p.426. 본 논문에서 순교자의 강인함 속에 숨겨져 있는 약한 기베의 측면을 6가지로 정리해 두었다.

에 존재하는 배교의 심리'에 대한 서술은 배교와 순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차별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 여겨진다.

2.4 『무사(侍)』 — 기독교의 일본토착화로서의 순교

작품 『무사』 17의 주인공 하세쿠라 로쿠우에몬(長谷倉六右衛門)은 하세쿠라 쓰네나가(支倉常長, 1571년~1622년)라는 실제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¹⁸⁾. 본 작품도 『철의 항쇄』의 유키나가와 『총과 십자가』의 베드로 기베처럼 역사적 사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작가 엔도의 픽션에 의한 장편소설이라 말할 수 있다.

로쿠우에몬은 센다이번(仙台藩)의 17대 다테 마사무네(伊達正宗)의 가신 무장으로서 번의 정책에 따라 '견구사절단(遣歐使節團)'으로 파견된다¹⁹⁾. 사절단의 표면적인 목적은 노스페니아(현 멕시코)와의 무역활성화를 위함이었으나 정치적인 야심은 태평양횡단의 항해기술을 습득하여 세계로 뻗기 위함이었다.

일본의 대사제로서의 출세를 위한 세속적인 야망을 갖고 있던 베라스코 신부는 멕시코에서의 사명을 약속하고도 스페인에서의 국왕 알현을 내세우며 로쿠우에몬 일행에게 형식뿐인 세례라며 기독교인이 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한다.

십자가에 앙상하게 말라빠진 남자의 나신이 새겨져 있다. 힘없이 양손을 벌리고 힘없이 목을 늘어뜨린 그 남자를 보면서, 무사는 베라스코를 비롯하여 남만인 모두가 이런 인간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사에게 있어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주님뿐이었는데, 그러나 영주님은 이와 같이 초라한 존재는 아니었으며, 무기력한 분일 리는 없었다. 이 앙상하게 여윈 자를 배례하는 것만으로도 무사에는 기독교가 기이하기 짝이 없는 사교(邪教)처럼 생각되었다. (p.118)

17) 작품 『무사』의 텍스트로는, 遠藤周作(1990) 『侍』, 新潮社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무사』와 관련된 인용문 페이지는 본 텍스트에 기인한다.

18) <http://search.yahoo.co.jp/search;支倉常長>
로쿠우에몬은 하세쿠라 쓰네나가가 처음 불렀던 이름임.

19) <http://search.yahoo.co.jp/search;支倉常長>
일본의 견구사절단은 1613년 10월 28일 쓰네나가를 정사(正使)로, 소테로를 부사(副使)로 하여 약 180여명의 인원으로 파견된다. 노스페니아(현 멕시코)와 대서양을 거쳐 스페인에서 1615년 1월 30일 국왕 웨리페 3세 알현 후, 육로로 로마에 입성하여 1615년 11월 3일 로마교황 바울 5세를 알현한다.

로쿠우에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상의 예수는 보기 싫게 말라빠진 남자, 위엄도 없이 그저 불품없는 남자로서, 사명을 위해 이용만 하고는 버릴 용도로만 있는 남자이었다. 십자가상의 예수는 본적도 없는 토지에 태어나 이미 아주 먼 옛날에 죽어버린 남자로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당위성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선조들과의 관계이었다.

기독교도가 되는 것은 야토(谷戸)를 배반하는 일이다. 야토는 그곳에서 살고있는 사람만의 세계는 아니다. 알고 있는 자들 모두의 선조나 혈연이 그곳에서 은밀하게 지켜주고 있다. 무사의 죽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세쿠라의 집이 있는 한 야토로부터 떠날 리는 없다. 그들 죽은 자들은 무사가 기독교도가 되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 (p.242)

로쿠우에몬에게 있어서 선조나 부모가 전혀 접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남만의 기독교에 혼자 귀의하는 것은 혈연과 고향 모두를 배반하는 일로, 갈등과 고뇌 속에 ‘기독교인은 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명을 위한 충정과 옛 영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가문 안위를 위하는 심정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로쿠우에몬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험난한 여정을 뚫고 귀국길에 올랐을 때 고국에는 더욱 강화된 금교령과 함께 신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문이 시행되고 있었다. 자신을 파견한 주군은 그의 존재가 오히려 방해가 되어 마닐라에 2년이나 체류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처형하기에 이른다.

이곳부터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돌연, 배후에서 요조의 짜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부터는..... 그 분이, 모실 것입니다.

무사는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며 크게 끄떡였다. 그리고 검게 빛나는 차거운 복도를, 그의 여정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갔다. (p.405)

주군에게 버림을 받은 로쿠우에몬에게 평생의 충실한 하인 요조의 ‘이제부터는..... 그 분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에 ‘뒤돌아보며 강하게 끄떡이는’ 문장에

서, 그에게 형식적일뿐이었던 세례속의 불품없던 예수가 진정한 신앙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는 예수와의 한 번 맺은 인연은 그 계기와 형식이 어찌되었든 인간이 가장 처절하고 외로울 때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동반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강조한 대목이라 하겠다²⁰⁾.

작품 『무사』는 실제인물을 모델로 했음에도 일반명사인 ‘무사’로 책 제목으로 정한 데에는 일본인 한 인물에 뿌리내린 기독교가 아닌 일본에서 가장 암반같이 단단한 정신세계의 집단인 무사²¹⁾들에게 기독교가 뿌리내렸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으로써 이질적인 정신세계로만 느껴졌던 서양 기독교가 ‘일본 속에 토착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2.5 『깊은 강(深い河)』 - 종교다원주의 속의 순교

가톨릭 신자 엔도의 신앙적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작품 『깊은 강』²²⁾은 그의 마지막 장편소설로서 그동안의 테마인 ‘일본인에 있어서의 신의 존재’와 ‘일본풍토 안에서의 기독교’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작품이다.

본 절에서는 『깊은 강』의 주인공 오츠(大津)를 통하여 종교다원주의 속의 순교자적인 삶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츠는 기독교의 현실 제도권 속에서는 이단자로 취급받고 있으나 엔도가 추구하는 ‘나의 예수’, 즉 인간의 나약함과 슬픔, 고뇌를 함께 나누고 아파하는 동반자로서의 사랑의 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하겠다²³⁾. 그는, ‘신은 기독교에도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지상의 모든 종교에도 존재한다’는 이단적인 신념을 지닌 가톨릭 신학생이다. 그는 인도의 힌두교도들 속에서 ‘나의 예수’에게 혼자 매일 미사를 올리며, 갠지스 강가에서 숨을 거두려는 사람들을 수도녀들이 운

20) 전계서, 遠藤周作(1990) 『侍』 p.265, p.340.

‘무사들에게 있어서는 형식적인 것, 교회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의식인 성사였다.(p.265). ‘당신이 그 분을 마음에 두지 않아도…그 분은 언제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p.340)

21)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본이라는 민족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집단이라 한다면, 주저함없이 무사집단을 들겠다. ‘충(忠)의 문화, ‘부끄러움의 문화’로서 상징되는 일본의 ‘할복’과 ‘죽음의 미학’의 정신세계를 역사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2) 작품 『깊은 강』의 텍스트로는, 遠藤周作(1990) 『深い河』, 講談社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깊은 강』과 관련된 인용문 페이지는 본 텍스트에 기인한다.

23) 전계서, 遠藤周作(1990) 『深い河』 p.67, p.282.

그의 예수는 강자로서의 전능한 기적을 행하는 신이 아닌, ‘불품없고 초라한, 그러나 모든 인간의 애환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예수’로 상징된다.

영하는 안식처로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²⁴⁾.

등근파(예수상징- 필자주)가 이 거리에 오셨다면, 그분이야말로 길가에 쓰러져 죽은 사람을 등에 업고 화장터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아계실 때, 그가 십자가를 등에 업고 옮겼듯이 -<중략>- 등근파가 유럽의 기독교뿐만이 아닌 힌두교 속에도, 불교 속에도,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뿐만이 아닌,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p.296)

오츠의 일과는 살아생전 고통속의 인간과 함께하며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본 작품의 특이한 점은 가톨릭 신자인 엔도가 가톨릭 용어인 부활이 아닌 불교용어인 환생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⁵⁾. 등장인물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에서 환생 사상이 혼재해 있는 나라 인도 여행에 참가하게 된다. 이소베(磯辺)의 경우는 그의 아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날 테니까 나를 찾아줘요.’라는 유언에 따라 참가하며 ‘부인은 이소베씨의 안에 확실히 환생’해 계신다는 미츠코(美津子)말에 위안을 얻고 있다. 동화작가인 누마타(沼田)의 경우도 부모의 이혼으로 어두웠던 유년시절,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었던 동물들이 누마타가 그린 동화의 세계 속에 환생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구치(木口)의 경우는,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 전우의 시체를 먹고 살아남았다는 가책으로 일생을 광기어린 삶을 보냈던 쓰카다(塚田)와 전쟁으로 죽은 모든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도를 찾게 된다.

불교가 말하는 선악불이(善惡不二)로서, 인간이 행하는 소행에는 절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대로 어떤 악행에도 구원의 씨앗이 숨어있다. 어떤 일에든 선과 악이 등을 맞대고 있으며, 그것은 칼로 자르듯 나눌 수는 없다. 분별해서는 안 된다. (p.320)

24) 수도녀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집’을 운영하며, 행려병자들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돌보고 있다.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의 다양한 신들이 함께 공존한다. 이러한 인도라는 나라를 작품무대로 설정한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상징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25) 일본어 원문에서는 전생(轉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전생(前生)과 혼돈의 우려가 있어서 환생으로 번역하였다. 본 작품에서의 환생은 윤회를 통한 환생이 아닌 죽은 사람의 발자취가 타인의 마음에 새겨져 공존함을 의미하고 있다.

선악불이가 의미하듯 인육을 먹은 쓰카다의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행이 아닌 죽어가는 전우 기구치를 살리기 위한 자비에 기인한 행동으로, 등장인물 가스톤의 위로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작품에서 오츠를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영혼이 추구하는 사랑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작가 엔도는 오츠의 입을 빌려 ‘신은 존재라기보다 작용’이라고 역설하며 인간에 대한 사랑의 행위야말로 신의 모습에 대한 구현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마네기는, 옛날 옛적에 죽었으나, 그는 다른 인간 속에 환생했다. 이천년 가까운 세월 후에도, 지금의 수도녀들 속에 환생했으며, 오츠 속에도 환생했다. (p.346)

오츠가 겐지스 강변에서 죽은 자의 사진을 찍던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은, 무상의 사랑의 행위를 실천한 그의 순교자적인 죽음을 통하여 예수가 오츠 안에 환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깊은 강』이라는 작품명이 시사하듯, 인간 삶의 모든 오욕과 고뇌, 위선과 같은 허식까지도 포용하여 정화시키는 깊고 큰 강의 이미지는, 작가 엔도가 일생을 걸고 추구한 ‘일본·일본인 안에서의 나의 예수’를 떠나, 모든 인종과 종파를 초월한 종교다원주의 안에서의 나의 예수에 대한 존재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²⁶⁾.

3. 배교와 순교 양상에 대한 특징비교

엔도의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배교와 순교의 묘사들은 일반적인 배교와 순교의 정의에 반하는 양상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엔도 자신이 ‘교회

26) 전개서, 遠藤周作(1993) 『深い河』 p.306

엔도는 간디의 어록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모두는 동일 지점으로 통하는 다양한 길이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한, 우리들이 각기 다른 길을 따라 간다 해도 상관없지 않은가’를 인용하며, 인간을 위한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가 아닌 내면세계의 ‘나의 예수인 사랑의 신’에 대한 믿음 여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각 작품의 배교와 순교의 양상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엔도의 문학사적 궤도 속에서의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침묵』은, 서양신부 로드리가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한 표면적인 배교 행위를 통하여 기존의 엄부로서의 교회의 신이 아닌 인간의 고달픈 삶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모성적인 사랑의 신’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 작품의 의의로서는 서양인을 위한 서양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일본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 즉 엔도가 말하는 ‘나의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배교와 순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비판의 시각으로, 역사의 뒷안길에 사라진 배교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철의 항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란의 시대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싶은 야망과 사랑을 설파하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된 무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고뇌에 찬 면중복배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본 작품의 의의로서는, 현세에 대한 권력적 야망이 신앙 안에서는 철의 항쇄로, 신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신앙이 오히려 야망에 대한 철의 항쇄로 작용하는 모순 속에서, 표면적인 배교행위인 면중복배의 삶 속에 내재한 신자로서의 갈등과 순교자적인 행동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있다.

『총과 십자가』는, 화형에 처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인한 순교자적 자세를 보인 강자 베드로 기베의 내면의 갈등 속에 잠재해 있는 배교의 가능성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본 작품의 의의로서는, 엔도 작품세계에서는 매우 드물게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순교한 신앙의 강자 베드로 기베를 모델로 하면서도, 역사적 자료에도 없는 ‘순교 속에 존재하는 배교의 심리’ 묘사를 통하여 배교자와 순교자의 차별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 있다.

『무사(侍)』는, 유럽 사절단으로서의 소명을 위해 이해할 수도 없는 기독교의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무장 하세쿠라 로쿠우에몬에게 신앙이 뿌리내리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본 작품의 의의로서는, 작품명을 역사적 실제인물이 아닌 일반명사인 ‘무사’로 명명하여 일본에서 가장 암반같이 단단한 정신세계의 집단인 무사들에게 기독교가 뿌리내렸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이질적인 서양 기독교가 ‘일본 속에서의 토착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깊은 강』은, 현실 제도권 속의 기독교에서는 이단자로 취급받는 주인공 오츠가 힌두교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겐지스 강가의 행려병자들을 돌보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다, 결국에는 타인을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다.

본 작품의 의의로서는, 엔도가 일생을 걸쳐 추구한 ‘일본인에 있어서의 나의 예수’를 떠나, 유일신으로서의 기독교의 우월적 의식을 배제하고, 모든 종교에는 종교의 본질인 현세에서의 평안과 구원의 세계가 내재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엔도는 각 작품에서 배교와 순교의 양상들의 특징과 의의들을 표출해 냄으로써 표면적인 행위로 규정되는 배교와 순교의 차별성을 제거하였으며, 모든 종파와 인종을 초월하여 어떤 비천한 존재에게도 사랑의 신으로 다가와 작용하는 ‘나의 예수’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4. 나가기

본 논문에서는 엔도의 사상적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 다섯 작품을 선정하여 배교와 순교의 양상에 대한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각 작품이 지닌 특징은, 『침묵』의 배교를 통한 사랑의 신과의 만남, 『철의 항쇄』의 면종복배의 삶 속에 내재한 배교와 순교자적 행동, 『총과 십자가』의 강자 속에 배교의 심리, 『무사』의 순교자적 죽음을 통한 서양기독교의 일본 토착화, 『깊은 강』의 종교다원주의 속의 순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엔도는 본 작품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배교의 행위로 인하여 교회역사의 어둠으로 사라진 인물들의 마음속에도

신에 대한 지순한 애절함과 순교에 대한 열망이 내재해 있으며, 빛나는 순교자들의 마음에도 배교의 심리는 늘 잠재하고 있어 그 누구도 표면적인 행위로 배교와 순교라는 이분법으로 그들을 단죄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다는 점. 둘째, 예수와의 한 번 맺은 인연은 그 계기와 형식이 어찌되었든 사랑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점. 셋째, 신은 부활한 천상의 존재가 아닌 우리의 고달픈 삶속에서 위로하고 행동하도록 작용하는 신을 의미한다는 점. 넷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환생하여 그 삶에 함께 동참한다는 점. 다섯째, 기독교의 우월적 사상을 버리고 모든 종교에는 종교적 본질인 삶에서의 평안과 구원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엔도의 메시지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파와 인종 안에 ‘작용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신 나의 예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앞으로 모든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양기독교와 다른 동양의 가톨릭작가 엔도문학에 대한 총체적 사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육근화(2001) 「엔도슈사쿠의 『총과 십자가』론」 『일본학보』 제49집, 한국일본학회, p.426.
 遠藤周作·三浦朱門(1967) 『キリシタン時代の知識人』 日経新書59 日本経済新聞社, p.65.
 遠藤周作(1977) 『鉄の首枷』 中央公論社, pp.94-95, p.227. p.262.
 _____(1978) 『沈黙』 新潮社, p.134, p.147.
 _____(1979) 『銃と十字架』 中央公論社, p.85, p.90, p.113, p.170.
 _____(1990) 『侍』 新潮社, p.118, p.242, p.265, p.340, p.405.
 _____(1993) 『深い河』 講談社, p.67, p.282, p.296, p.306, p.320, p.346.
 遠藤周作(1993) 『深い河』 新潮社, p.303, p.320, p.296, p.265, p.335.
 片岡弥吉(1991) 『日本キリシタン殉教史』 時事通信社, p.440
 新教出版社(1996) 「座談会 ‘神の沈黙と人間の証言’」 『福音と世界』, 新教出版社, p.5.
 小西行長 : <http://search.yahoo.co.jp/search>
 ペトロ岐部 : <http://search.yahoo.co.jp/search>
 支倉常長 : <http://search.yahoo.co.jp/search>

논문 투고 일자 : 2016.12.25. 논문 심사 일자 : 2017. 01. 21. 게재 확정 일자 : 2017. 01. 22.
--

 <要旨>

遠藤周作作品における背教と殉教の様相考察

陸根和

本論文では、遠藤の思想の流れを知ることのできる主要五作品(『沈黙』、『鉄の首枷』、『銃と十字架』、『侍』、『深い川』)を選び、背教と殉教の様相の特徴と文学史的意義を考察した。

遠藤はこれらの作品を通して次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伝えている。最初に、背教という行為により教会史の闇に消えた人物の胸中にも、神に対する至純な愛と殉教に対する熱望が内在しており、輝ける殉教者の心にも背教の心理は常に潜在していて、その誰をも、表面的な行為だけで背教と殉教という二分法で彼らを断罪したり非難したりできないという点。第二に、イエスとの一度結んだ縁はその契機と形式が何であれ、愛の同伴者として永遠に結ばれるという点。第三に、神は復活した天上の存在ではなく、私たちの虐げられた人生において、慰め行動するように作用する神を意味するという点。第四に、人間は他の人の人生の中に生まれ変わり、その人生に共に参加するという点。第五に、キリスト教が優越するという思想を放棄し、すべての宗教には、宗教的本質である人生の平安と救いの可能性が内在しているという宗教的多元主義を標榜したという点、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なメッセージは洋の東西を問わず、あらゆる宗派と人種の中に「作用し実践する愛の神、私のイエス」に対する確信と共に、今後宗教が進むべき方向を示したという点から、遠藤文学に対する文学史的意義を探ることができよう。

A Study on the Modes of the Apostasy and the Martyrdom in the Works of Endo Shusaku

Yook, Gun-Wha

This essa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s of the apostasy and the martyrdom in the major five works("Silence", "The Iron Fetters", "The Gun and the Cross", "The Warriors", "Deep River") of Endo Shusaku which shows the trends of author's thoughts and their influences on the Japanese literary history.

Endo's messages of the above works are as follows:

First, no one can be defined either an apostasy or a martyr only through their behaviors since the martyr may hide his potential intention of betrayal. Second, once they have known Jesus Christ, the love relationship between them keeps going. Third, God is living existence who shows His love and care for people through their daily suffering. Fourth, human lives are interconnected one another. Fifth, every religion has the ways of perfect peace, the possibilities of salvation which is the essence of every religion.

Endo's literary thoughts are shown through all these messages in which Endo suggests the right direction of religion based on his conviction of Love of God regardless of race or any religious denomination of the world.